

# 러 심장부 뚫렸다... '푸틴 리더십' 테러 당하다

### 외신들 “모스크바 공연장 대테러 참사는 러시아 총체적 굴욕” “우크라 전쟁·선전전 올인”...공공안전 구조적 문제 ‘도마 위’ 미국 정보 무시하다 허 찢린 러시아 “미국이 테러공범” 주장

러시아 심장부가 뚫린 지난 22일(현지시간) 대형 테러를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과의 대결에 매몰돼 내치를 망치고 있다는 오명을 안게 됐다.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며 최근 5선 대관식을 치른 푸틴 대통령이 신냉전 기류에서 강화하는 철권 통치의 취약성이 공공안전 참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 22일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는 러시아의 총체적 굴욕으로 평가된다.

기준에 과시해온 안보 역량이 한번에 무너진 사실을 넘어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부를 구조적 문제까지도 보인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 정부가 극단주의 세력의 대테러 가능성을 미리 경고했지만 묵살했다.

푸틴 대통령은 테러 사후 전 “명백한 협박”이라며 “우리 사회를 겁주고 불안정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러시아가 미국의 정보를 실제로 불신했는지, 그런 경고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서방 언론들은 이 같은 공공안전 실패의 원인으로 푸틴 정권의 과도한 선전, 전시체제의 예외된 자원배분을 꼽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뒤 서방과의 대결에 집중하며 모든 문제를 서방 탓으로 돌리려는 성향을 보여왔다.

러시아 당국이 이번에 미국의 정보를 묵살한 원인으로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성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에서 푸틴 정권의 권위주의가 강화돼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들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WP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받거나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모든 경고음이나 약제를 서방의 허위 정보나 악성 선전전으로 모는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푸틴 대통령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모습을 감췄다가 나중에 나타나 서방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온 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푸틴 대통령은 테러 발생 후 몇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나 긴급사태에 입을 열었다.

IS(이슬람 국가) 분파인 ISIS-K가 이미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하고 관련 정황도 속출했지만 우크라이나와 연계성을 들고 나온 것이다.

러시아의 대외 선전매체인 RT는 벌써 미국의 테러 위협 경고가 미국이 테러 준비에 참여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푸틴 정권으로서 우크라이나 장기전을 버틸 전 시체제를 유지할 동력으로 서방에 대한 전국민적 반감이 필수적이다.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은 서방의 개입 때문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러시아 대사관 앞에 모스크바 공연장 총격 테러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다발과 촛불이 놓여 있다. 지난 22일 발생한 테러로 지금까지 13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에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침공전의 자체 명칭)이 ‘전쟁’으로 전환됐다고 선언했다.

전쟁과 권위주의 체제를 떠받치기 위한 푸틴 정권의 이 같은 선전전은 치안을 위한 자원 부족과 맞물려 우려를 더한다.

안보 자선이 전쟁에 빨려들고 선전 때문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공안 정책이 공화전하면 러시아인들이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가.

모스크바의 한 사업가는 WP 인터뷰에서 “(테러가 발생한) 크로코스 시티는 공연장이 많은 거대한 장소라며 “경찰이 많이 있었어야 했지만 거대 공공행사의 안전에 책임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테러 전문가 그리고리 세르시코프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연방보안국(FSB)이 우크라이나전과 관련 위험에 너무 집중한 것 같다”며 “너무 많은 전선에서 싸우면서 과부하가 걸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 인력 수십만명이면 어떤 테러도 다 막을 것”이라고 비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이 안보·정보 당국에 침묵한다면 푸틴은 저런 상황을 다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 인질 40명-수감자 800명 교환 제안”

### 이 언론 “타결 가능성 50%”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 자국 인질 40명과 팔레스타인 보안 사범 800명 교환 안을 제시했다고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주요 쟁점에서 새로운 유연한 제안을 하고, 하마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흘간(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아히야 신와르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며 타결 가능성은 50%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이스라엘이 파리 회의에서 만든 중재안에는 6주간의 휴전 기간에 이스라엘 인질 4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400명을 석방하는 제안이 들어 있다.

이스라엘은 또 가자지구 북부 출신 피란민의 거주지 복구를 허용하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 피란민의 거주지 복구에 확인되지 않은 조건을 덧붙였고, 성인 남성의

복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요구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군 불가와,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하마스 소탕전을 즉각 재개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채널12는 덧붙였다.

하마스는 그동안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영구 휴전 약속을 요구했고, 이스라엘은 이를 ‘방상에 가득 찬 제안’이라고 비판하며 거부했다.

170일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에도 견해를 좁히지 못한 채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을 맞았다. 특히 하마스가 요구한 이스라엘군 철군과 영구 휴전 조건을 이스라엘이 일축하면서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졌다.

다만, 라마단 시작 후 하마스가 철군과 영구 휴전 조건을 완화한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지난 18일 도하에서 협상이 재개됐다.

이스라엘 협상단을 이끌고 협상에 참여했던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은 본국 보고를 위해 귀국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 “영국 왕실 전례없는 위기”

### 국왕 이어 왕세자빈도 암 투병

찰스 3세 영국 국왕에 이어 윌리엄 왕세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까지 암 진단을 받으면서 영국 왕실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복부 수술을 받은 왕세자빈이 공무에 나서지 않으면서 촉발한 각종 루머는 그의 암 투병 공개로 일단락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왕실 핵심 인사 두 사람의 투병으로 ‘흔들리는’ 왕실 상황을 노출하게 됐다. 분석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이번 왕세자빈의 암 투병 사실 공개는 왕실이 최근 전례 중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찰스 3세 국왕은 지난 달 5일 암 진단 사실을 공개했다. 왕세자빈은 지난 22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직접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국왕과 왕세자빈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의 많은 부분은 왕세자가 짊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다만 왕세자가 당분간은 공식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투병 중인 왕세자빈의 회복을 돕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일단은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왕세자빈은 22일 자신의 암 진단 사실을 밝히며 “윌리엄과 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이를 사적으로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무엇보다 조지와 샬럿, 루이에게 모든 걸 설명하고 내가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한 바 있다. 외신은 카밀라 왕비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왕의 왕세자 시절부터 내연 관계였던 그는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빈이 사망한 뒤 2005년 국왕과 재혼한 인물로, 한때 그의 존재 자체가 ‘왕실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하지만 국왕의 즉위와 함께 왕비가 된 그는 남편과 며느리의 투병으로 왕실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안정을 주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NYT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 미군·일 자위대 공조 강화 “내달 동맹 업그레이드”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 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달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인 옵션들은 미군 태평양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대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주일미군 업그레이드 방안 등이라고 FT는 전했다.

이는 대만 유사시와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한 중국발 위협에 대응해 미일 간 군사 공조와 작전 계획 수립을 보다 더 빈틈없이 하려는 차원이라고 FT는 전했다.

이 같은 검토는 6200km 거리에 19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하와이 소재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 간 협행 조율 체계가 유사시 신속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2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 중국 헝다그룹 파산보호신청 철회

중국 부동산 회사 헝다(에버그란데)그룹이 지난해 미국 법원에 제출했던 파산보호 신청(챌터 15)을 철회했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계열사인 티엔지 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SJ와 함께 지난 22일 뉴욕 파산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철회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의 파산보호 신청 철회 소식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알려졌다.

헝다그룹은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에 역외 채무조정을 위해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나 올해 1월 홍콩 법원이 이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면서 역외 채무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

티엔지와 SJ는 헝다그룹의 해외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하는 회사다.

헝다그룹 청산인들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건의 파산보호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업체로 알려진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 말 3천억 달러가 넘는 빚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됐다. /연합뉴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